

시선

사설

법인, 재정운영 능력 기반 탄탄히 해야

지난 13일,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KMC)가 글로벌 다이닝에 대한 명도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명도소송의 책임은 명백히 ‘위탁운영’의 책임자인 글로벌다이닝 측에 있다. 글로벌다이닝은 KMC의 자회사인 케이에이치아이자산운용(KHAM)과 교내 3개소의 카페에 대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자재 수급과 직원 고용 등을 포함해 카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바 있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의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넘긴 후 권리금과 임대금 등만 행거운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부터 ‘카페 시설의 원활한 운영’보다는 ‘거기에 서 나오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셈이다.

위탁운영계약을 단지 눈앞에 놓인 불로소득의 도구로 악용한 글로벌다이닝 측의 모럴해저드로 인해 빛 어진 일련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KMC와 KMC에 전액출자한 법인 경희학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볼 때, 이 위탁운영계약은 계약 내용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하다. 카페 설립을 위한 인테리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은 카페 매출수익의 무려 88%를 글로벌 다이닝 측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광열비 등도 KHAM이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KMC 측이 스스로 언급한 대로, 이 계약은 ‘카드 수수료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굉장히 이상한 계약이다.

KMC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법인에서 3억 원의 출자금을 내어 만든 회사다. KMC의 설립 목적은 단연 ‘수익 창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 재정의 높은 등록금의존율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된 재정수익다면화전략의 일환이었으며, 따라서 KMC의 운영 양상에는 법인의 재정운영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MC는 등록금의존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수익창출은 고사하고,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누적손실 124억 원, 부채 393억 원과 같은 수치들로 구성원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바 있으며, 지난 2월 23일에 있었던 2014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는 KMC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에서 10억 원을 증자해 달라는 안건이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재정 수익을 위해 설립한 회사에 되려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 이번 글로벌다이닝과의 위탁운영계약 건을 둘러싼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제 KMC와 법인은 ‘현명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구심 섞인 시선 앞에 서게 됐다.

교원징계와 관련된 법인의 솜방망이 식 처벌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 부문에서마저 구성원들의 믿음을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구성원이 법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법인은 구성원에게 ‘말’이나 ‘계획’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을 향한 구성원의 엄혹한 시선이 ‘경희의 미래’에 대한 낙담의 눈길로 변하기 전에 말이다.

네팔 구호 기금 모금 중 온라인·청운관서 참여 가능

미디어 여론동향 2015. 5. 18 ~ 5. 2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구사회봉사단(GSC)이 네팔 지진피해 긴급구호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네팔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 합니다!/대학주보 온라인, 2015.5.21) 온라인은 오는 31일까지 ‘기아대책’ 홈페이지(<http://www.kfhi.or.kr>)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청운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부스를 통해 성금을 낼 수 있다. 온라인 모금은 최소 3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며, 오프라인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모금된 기금은 기아대책에 전달해 네팔 북부 산간지방인 ‘신두부족’의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금활동과 더불어 온라인 희망메시지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구사회봉사단 페이스북 페이



이주의 주제 - 학과간 전공기초 인정여부

경직된 학사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학사제도를 취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저희 학과에서는…” 학과들이 지마다의 규칙을 세울수록, ‘통섭’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타 전공의 벽은 높아진다. 심지어 이원화 캠퍼스인 우리학교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쪽(타 캠퍼스)일은 저희도 잘 몰라요”는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다.

우리학교에는 81개 학과가 있다. 학문적 특수성 탓에 각각의 규정을 모두 외우고 있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쯤 되면 서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싶다. 기준을 정해줄 곳은 결국 대학본부다. 하지만 세 번째로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학과의 의견에 따라…”다. 대학본부까지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결국 ‘목마른’ 학생들만 직접 동분서주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다전공·전과 시 ‘물리학’과목 등에 관련한 캠퍼스 내부에서의 유사 전공기초 인정 여부부터 양 캠퍼스 후마나티스 칼리지 간 행정 이원화, 국제학과의 일부 전공과목이 각 캠퍼스끼리 서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까지 만났던 사례는 다양했다. 만났던 학생들은 실제로 느끼게 되는 학과간의 ‘벽’ 때문에 학업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개중에는 자연되는 학업에 고심하다가 다전공을 포

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사실 이미 기사화됐던 ‘서울-국제 자연계열 전공기초’ 문제도 같은 맥락의 일이다.

국제캠퍼스에서 ‘미분적분학’을 수강했던 박군은 서울캠퍼스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다전공하며 사실상의 동일과목인 ‘미적분학 및 연습’을 다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제학과 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국제학과의 ‘Introduction to Economic I’와 서울캠퍼스 개설강좌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각 행정실에 문의결과 ‘국문명이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됐다. 이처럼 캠퍼스 내·외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교재나 내용적인 면이 동일·유사한 과목들에 대해 ‘전혀 다르다는’ 엄격한 장대를 들이밀고 있다.

물론 해당 학과의 판단은 중요하다. 학과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을 이끌고 갈 지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학과에 있다. 하지만 서로가 인접 학문에 대한 효용의 ‘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결국 학문 간의 ‘융합’을 만날 수 없다. 더불어 행정적 통합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수많은 운영 지침들이 얹히는 가운데, 이 모든 경우를 관통하는 획일화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기초과목에 있어서 개설단위를 통일하거나, 유사과목에 대해 해당학과 교수가 수강 인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정도를 마련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수 있고, 나아가 학문간 융·복합을 토대로 창의적 인재를 기른다는 목표도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의 네팔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다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Pray for Nepal’ 물병을 증정한다.

제18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14일 크라운관에서 개최됐다.[제18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39개국 1,241명 지원…각종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대거 참여/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5.20) 39개국 1,241명이 지원한 예심을 거쳐 최종 13개국 16명의 외국인들이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에만 있다! 없다!’와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국악의 매력, 독도의 아름다움, 친절한 서비스, 24시간 배달 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상은 몽골 유학생 윤치코타크 오양가 학생이 수상했다. “다양한 음식을 장소 불문하고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한국의 배달문화에 감탄했다”는 그는 야식을 즐기며 2달 동안 체중이 12kg 늘어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의 배달문화를 제대로 체험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와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이 제4회 황순원 사이버 백일장을 개최한다.(경희대, 제4회 황순원 사이버 백일장/서울경제, 2015.5.20)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백일장은 소설가 황순원 선생(1915~2000)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문학인의 참여를 촉진,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백일장의 장르는 수필이며 주제는 ‘아버지’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당선자 발표는 오는 6월에 한다. 시상식은 9월 13일 황순원문학관에서 열린다.

‘당신’을 기억하고 감사해
하는 이가 많다고 믿습니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당신을 늘 기억하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신은 대개 구석진 곳에 쉬었다. 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보고도 어물쩍 지나가기 일수였다. 그런 스스로를 무관하게 여겼지만, 어느새 잊고 살았다. 새삼 당신을 상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같은 것이 필요했다.

얼마전 서울여대 종학생회(총학)는 당신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축제를 앞두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여론은 분개했다. 서울여대 종학은 해명하는 공지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곧 틴트를 나눠주는 이벤트 소개글을 올렸다. 생존, 위기, 분노가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그 정도의 일이었다.

댓글들을 읽어내려갔다. 분노는 서울여대, 나아가 여성 등을 대상으로 겉거리를 뻗어갔다. 서울여대 학생들도 종학의 행동에 분개했다는 점이나, 당신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혐오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곧 당신은 뒤로, 뒤로 또 밀려났다.

혹시 이쯤 읽고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닦여있는 책상’을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다.

“막막한 우리에게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는 어두운 동굴 속 등불과 같았습니다. 명문은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당신께 묻고 싶다. 덕성여대 종학은 오는 28일부터 축제에서 당신들과 함께 연대주제를 열기로 했다. 수익금은 당신의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서도 2주간 열리는 대동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뒷정리에 나름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밝으면 토사들이 묻은 변기가 당신을 기다렸다. 하나의 단과대학 앞 바닥에 구르는 쓰레기를 줍고 나니 3봉지나 됐다. “좋아졌다. 고맙다”는 당신의 말을 듣기에 민망했기에, ‘더 좋아지겠다. 감사하다’는 말은 속으로 삼켰다.

여전히 이글을 읽는 이가 당신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캠퍼스 풍경이 무참해질 것이다.

지난 11일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붙은 당신의 대자보를 접했을 때를 떠올렸다. “막막한 우리에게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는 어두운 동굴 속 등불과 같았습니다. 명문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공부만 하고 주위를 챙길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명문은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자보를 다 읽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명문을 만드는 학생들, 그 학생을 만드는 일에는 당신도 꼭 필요하다’고.

이글의 마지막 문단을 남기고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다. 그러나 끝까지 당신의 다른 이름을 적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부족하고, 더 나아져야겠지만 당신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하는 이가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도 명문을 만들어가겠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